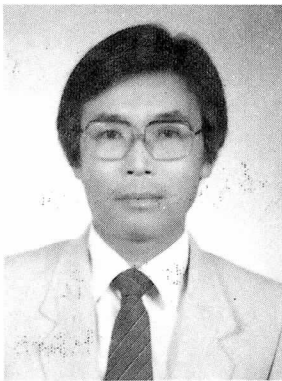


한국 무역 자동화를 위한 EDI 구축 운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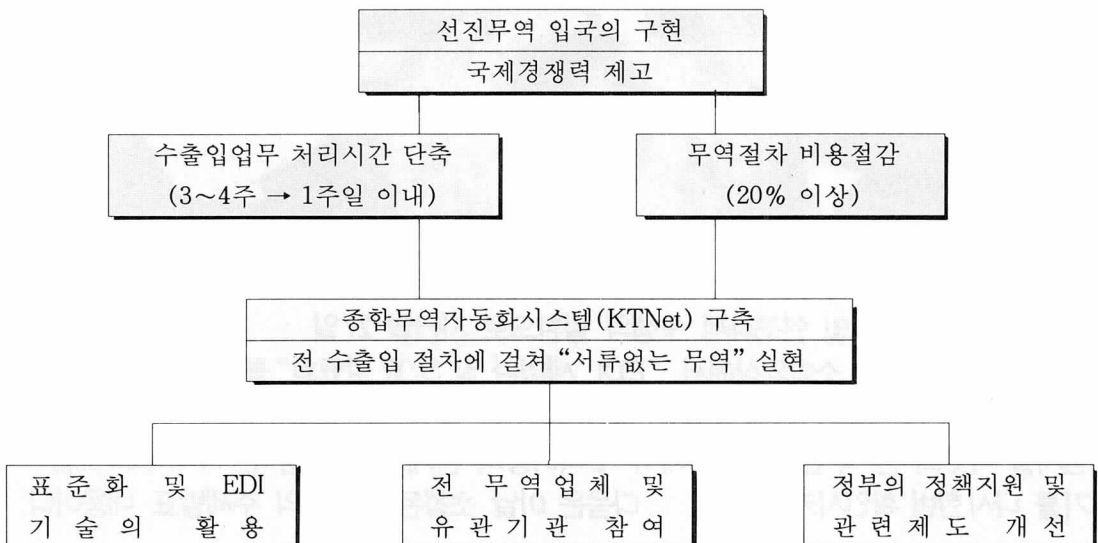
金 圭 洙

〈종합무역자동화사업추진단 이사〉

I. 무역자동화를 위한 각국의 활동

1. 종합무역자동화사업의 개요

-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무역관련 절차 및 서식을 표준화하고 새로운 정보전달수단인 전자자료교환(EDI) 기술을 응용하여
- 상역, 외환, 통관, 운송, 보험 등 수출입절차 전반에 걸쳐 전 무역업체 및 유관기관을 컴퓨터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(Korea Trade Network : KTN)을 구축하여
- “서류없는 무역”의 실현과 함께 수출입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관련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및 선진무역 입국을 구현하기 위한 범국가적 사업임.



2. 외국의 무역업무 자동화 추진현황

- 무역업무 자동화는 '70년대 스웨덴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'80년대 들어 새로운 정보 전달수단인 EDI기술의 이용 및 UN/EDIFACT 등 국제규범에 따른 표준화 활동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이 활발히 추진
- 특히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 등은 무역자동화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으며, 미국, 일본, EC 등 주요 선진국들도 각 산업

별 EDI 활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무역업무 자동화에 큰 진전을 이룩

- 더욱이 유엔(UN)에서도 EDI 국제표준인 UN/EDIFACT를 개발하여 '서류없는 무역 절차'의 실현을 위해 각국에 이를 적극 권고함에 따라 '90년대 중반 이전에 무역업무 자동화는 범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.
- 각국의 무역업무 자동화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국 가	추진조직	무역자동화시스템
미 국	무역서류위원회(NCITD), 관세청, 미국표준연구소(ANSI), 기업	통관(ACS), 화물(CARDIS), 기타 TELENET, ARPANET, BITNET 등
일 본	일본통신공사(NTT), SHIPNET센터	항공(NACCS), 선적(SHIPNET)
영 국	무역절차위원회(SITPRO), 기업	무역(TRADANET), 항만(LACES)
독 일	관세청, 항만청	통관(ALFA)
프 랑 스	항만청, 연구기관	통관(SOFI)
싱가포르	국가전산원(NCB)	무역전반(TRADENET)
홍 콩	공공기관 및 기업	무역전반(TRADELINK, INTERTRADE)
스 웨 덴	무역절차위원회(SWEPRO)	해운(SWECOM-SEA), 육운(SWECOM-LAND)

3. UN의 국제무역절차 간소화 활동

가. 무역서식의 표준화

- 유엔(UN)이 '60년대초부터 국제적인 무역서식 표준화 활동을 벌여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무역서류는 대부분 유엔의 기본서식설계도(UN Layout Key : UNLK)에 따라 표준화된 서류임.

나. 무역절차의 간소화

- 수·출입절차와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폐지 및 개선을 각국에 권고
 - 영사송장의 폐지, 선적전 검사의 폐지, 사전 수입신고제도의 도입, 표준무역용어의

사용, 기타 운송·보험관련 각종 절차의 간소화

다. 무역절차의 자동화

(EDI에 의한 무역업무 처리)

- 무역거래에 관련된 모든 거래용어 및 서류상의 기재항목을 표준화하여 유엔 무역데이터항목집(UNTDDED)에 따르도록 권고
- 국제간의 EDI에 의한 무역서류 교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EDI표준인 유엔무역 데이터교환지침서(UNTDID)를 제정, 각국에 권고
 - 무역데이터전송교환통일규칙(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

Data by Teletransmission : UNCID) : EDI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무역데이터교환에 관한 일반적 원칙

- 행정, 상업 및 운송분야 EDI표준(EDI for Administration, Commerce and Transport : UN/EDIFACT) : 메세지 구문규칙, 메세지 설계지침서, 메세지 구문 실행지침서, 유엔표준메세지 등

II. 한국의 종합무역자동화 사업

1. 종합무역자동화사업의 필요성

- 무역규모 확대에 따른 업무처리의 한계
- 국제경쟁력 유지 강화의 필요성 대두
- 무역업무 서울집중 해소 및 지방의 균형적 발전에의 기여
- 통신시장 및 서비스시장 개방에의 대처
- 세계적인 무역업무 자동화 추세에의 부응

2. 종합무역자동화사업의 추진방향

- 관련 정부부처,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 전반에 걸친 공동참여
- 민간주도의 전담조직에 의한 추진
- 제도와 환경을 감안한 현실적인 사업 추진
- 국제적인 표준화 활동 및 무역제도 선진화 시책과 연계
- 공공사업으로서 모든 무역환경을 지원하는 TRADEVAN 구현
-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축
- 국가기간전산망 및 해외 무역망과의 연결 추진
- 자율적 가입 유도 및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

3. 종합무역자동화사업의 주요내용

가. 표준화

- 무역관련 절차 및 서식의 표준화
- 표준전자서류(메세지)의 개발 및 보급(UN/EDIFACT)

- 관련법규 및 제도의 개선방안 강구

나. 시스템 구축

- 이기업 이기종 시스템간 상호접속(OSI)
- EDI관련 표준 응용 S/W의 개발 및 보급
- 센터시스템, 사용자시스템 및 통신네트워크 구축
- 뉴미디어 등 고도 EDI 실현에의 대응

다. 교육 및 홍보

- 종합무역자동화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홍보
- 국내 EDI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
- 사용자 교육 및 EDI 전문인력 양성

4. 종합무역자동화사업의 대상업무

- 원칙적으로 상역행정, 외환, 통관, 운송, 보험 등 전 수출입절차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
- 파급효과가 크고 실현이 비교적 용이한 대상업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

5.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의 구축

가. 기본방향

- 대상업무, 업무처리 방식, 확장성 및 활용도에 있어 사용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
- 수출입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무역업계 및 무역유관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
- UN/EDIFACT을 표준으로 하는 전자서류(메세지) 설계 및 OSI, CCITT 등 국제규약에 따른 네트워크의 표준화로 금융망 등 국내외 주요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추진
- 신뢰성이 있고 보안 및 안전성이 보장된 미래지향적인 RASS(Reliability, Accessibility, Safety, Serviceability) 시스템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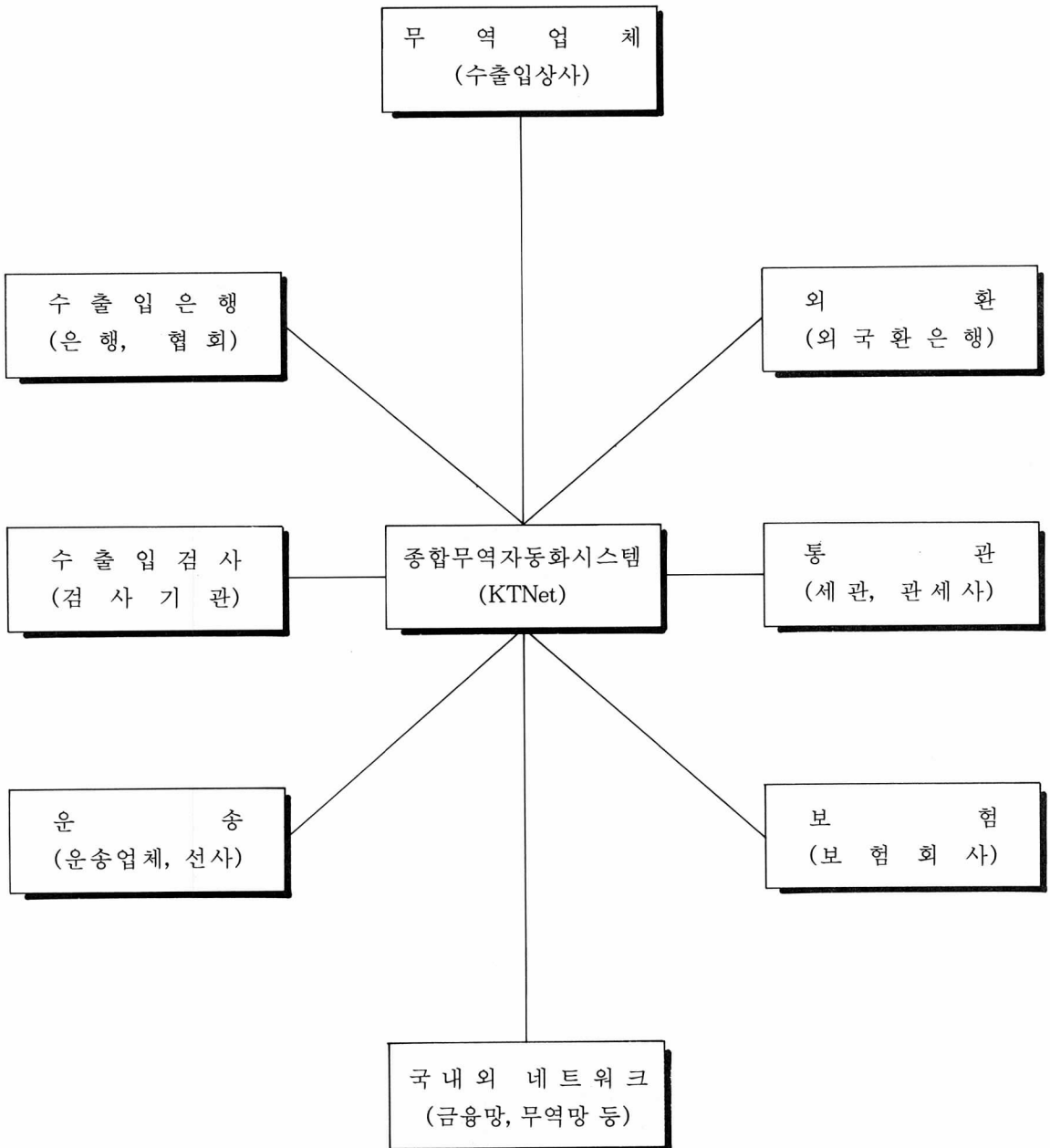
나. 표준화 체계

- 데이터 및 거래수준의 표준 : UN/EDIFACT의 구문규칙에 근거한 한국표준안
- 메세지 전송 표준 : ISO 권고안(CCITT X.400)

- 기본통신 프로토콜 표준 : ISO 권고안 (CCITT X.25)
- 표준 W/S 한글 코드 : 한글 국가표준코드 (KSC 5601)
- ※ UN/EDIFACT(UN Electronic Data Inte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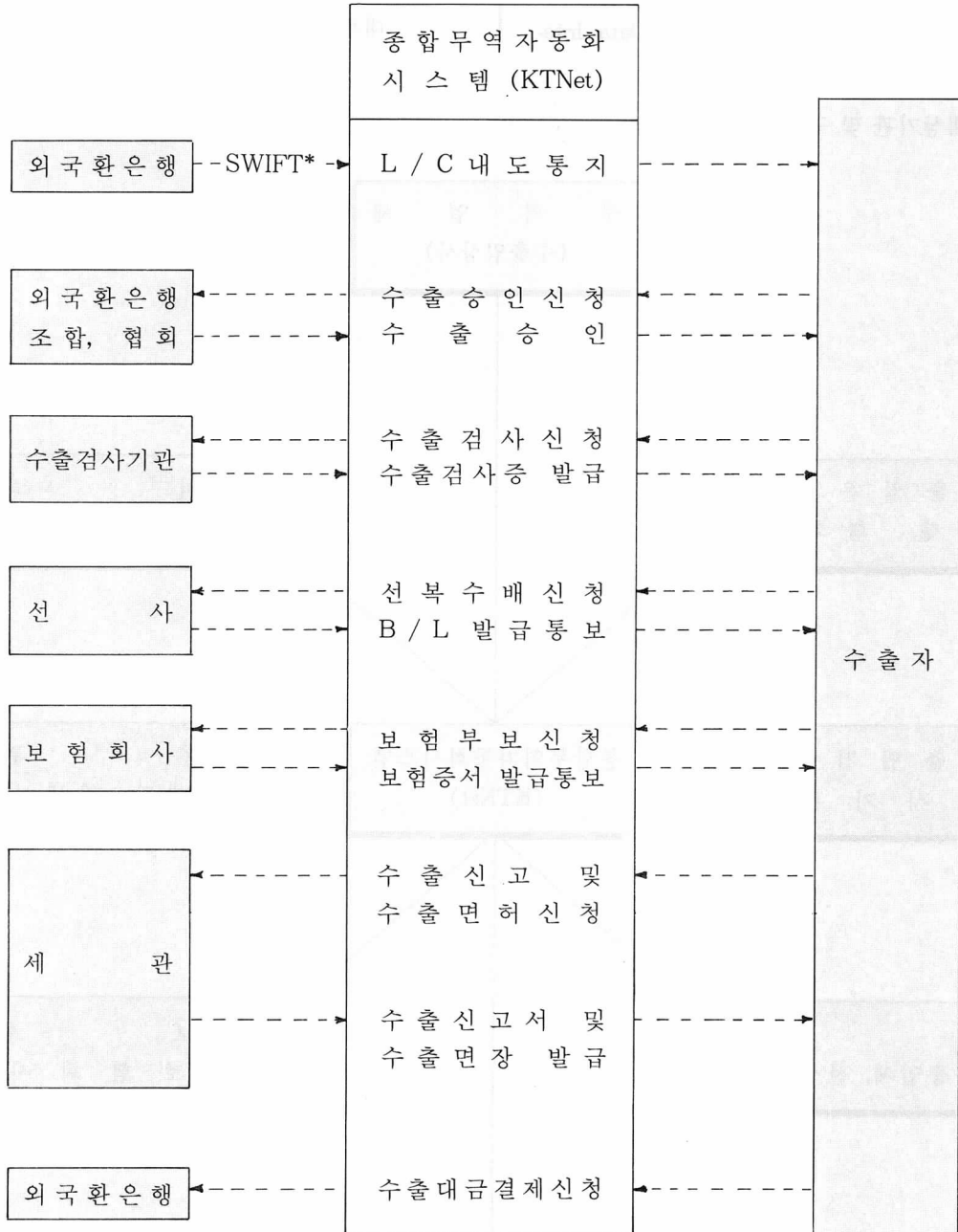
rchange for Administration, Commerce and Transport) : 1987년 3월 유엔(UN)에서 제정한 행정, 산업 및 운송에 관한 EDI 국제표준으로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표준으로 채택

다. 대상기관 및 구조도



6.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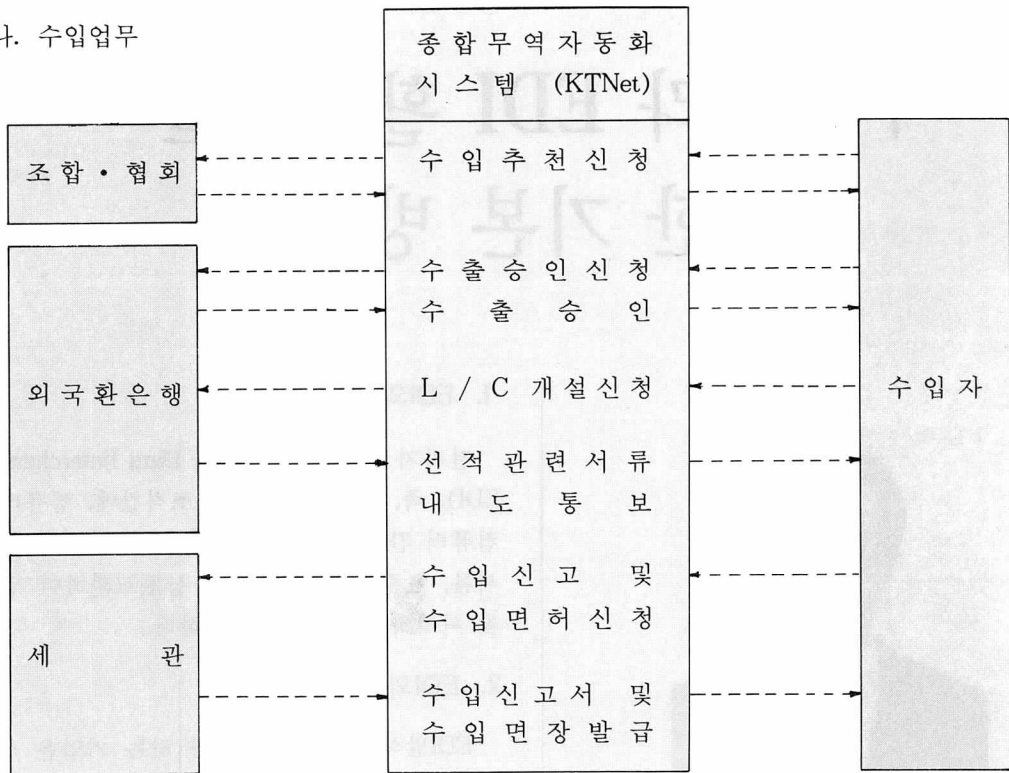
가. 수출업무



* SWIFT(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) :

국제은행 통신망으로 은행간의 자료를 EDI방식으로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

나. 수입업무



7. 종합무역자동화사업의 기대효과

가. 개별기업

-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(KTNet)이 구축되면 개별기업은 전국 어디에서나 컴퓨터로 무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의 절감, 고객 서비스 향상, 경쟁력 확보 및 경영합리화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됨.
- 현행 3~4주의 무역업무 처리시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
- 수작업에 따른 오류발생 방지 및 재입력 시간 절약
- 사무처리 비용, 인건비, 창고시설 등의 운영비 감소
- 신속 정확한 주문처리로 적정 재고수준 유지(Just In Time)
- 빠른 자금회전, 고객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우위 확보

나. 국가전체

- 국가 전체적으로는 무역정책 수립 관리의 고도화, 중소기업의 다품종 소량수출 촉진, 정보산업 발달 및 정보화 사회 촉진, 무역업무 서울집중 해소 등을 통한 지방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됨.
- 정부의 무역정책 수립 및 관리의 고도화
- 총 2조3천억원(1996~2000년)의 무역절차 부대비용 절감
- 총 3,610억원의 정보산업 수요창출 및 정보화사회 촉진
- 다품종 소량수출 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 효과
- 무역업무의 서울집중 해소를 통한 지방의 균형적 발전 도모
- 우루과이라운드(UR) 협상에 의한 통신시장 개방에 대처
- 국가간 EDI 방식에 의한 무역업무 자동화 추세에 부응